

문화

“불화와 제가 하나될때만이 성불 가까워진다는 걸 깨달았죠”

선아트스페이스 박경귀 원장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선아트스페이스는 이름 그대로 불교미술을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시, 불화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불교미술의 가치를 알리는 선아트스페이스 박경귀 원장(51)을 7월 6일 삼청동 작업실에서 만났다.

박 원장은 불화작가로 시작해, 선아트스페이스 운영, 사찰 법당 장엄 등을 통해 불교미술의 영역을 넓혀왔다.

“20여년 전 일본식 2층집을 사서 작업실과 살림집으로 사용했는데, 삼청동이 개발되면서 8년전 집을 헐고 5층 건물을 짓게 되었죠. 불화 작업공간과 무료 전시공간을 두어 모두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나머지 공간은 임대료를 쥐 공간 운영 대안을 찾았죠.”

특히, 지하에 위치한 스페이스선+는 2009년부터 무료전시 공간을 제공, 작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여기서 ‘+’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진작가와 추천작가 등을 선별해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80여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 갔죠. 작가들이 전시를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고 이를 통해 창작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있어요.”

13살 때부터 불화를 시작한 그는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불화를 그려왔다. 물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렇듯 작가로서 그의 삶도 녹록치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돈이 없어 물감은 물론 쌀을 사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려울때마다 예외 없이 어디선가 작업 의뢰가 들어왔고 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하며 작업을 이어왔다.



선아트스페이스 박경귀 원장은 전시, 불화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불교미술을 알리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페이스선+ 무료 전시공간 운영
20여년간 150여 사찰에 탱화 작업
‘법당장엄’ 불교미술 영역 확장도
최근 세월호 소재 관련 작품 완성

“이상과 가치중심적인 제 성격이 종교와 불화와 잘 맞아요. 청년시절에는 칼라와 선에 심취했고 불교철학을 공부하며 그 내용적 의미를 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죠. 그리고 어느날은 ‘자타일시성불도’에 대한 의미가 가슴에 와 닿으며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성불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켈러리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와 내 자산에

대한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의 운영자 이전에 불화작가인 박 원장은 지금까지 성관사 아미타극락변상도, 수원사 관음도, LA태고사 석가모니후불도, 조계사 시왕도 등 사찰 150여 곳의 탱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또한 조계사, 수원사, 불광사 등 10여 사찰의 법당 장엄(실내 인테리어 작업)으로 불교미술의 영역을 확장시켜왔다. 이외에도 ‘링크북다’ ‘만월’ ‘여시아문’ 등의 선화를 통해 창작의 세계를 넓혀왔다.

특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는 달이다. “태양은 온전한 그 모양으로 항상 존재하지만 달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우리네 삶을 표현하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달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세월호를 소재로 한 작품도 완성했다. 팽목항에 웅크리고 앉은 유가족 모습과, 달 속에 피어난 아이는 극락왕생을 기원했고 또 달 안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추모댓글을 빼곡히 담아 원을 완성했다. “이 작품을 본 제주도 우리절에서 탱화의뢰가 들어와서 짝을 이루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우리절은 진도 앞바다를 향하고 있어 희생자가 환생해 제주도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어 뜻 깊은 작업이 되었죠.”

그는 그간의 작품을 모아 내년에 개인전을 여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온 사찰법당 장엄 작업의 노하우를 모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사찰은 변화하고 대중들의 요구도 달라지니 사찰 디자인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다양한 분야의 후배들과 팀을 이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분야를 잘 개척해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hjs@ryunbul.com

갈 길이 멀어 요사에서 잠드네

산사에서 세속의 먼지 씻기

황현의 ‘약속대로 해학과 함께 화엄사에 가다(赴海鶴華寺之約) 라는 제목의 칠언율시 두 번째 수는 시각과 청각을 총동원하여 화엄사를 느끼게 한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 화엄사 ㉞



봉봉류수쇄춘성(蓬蓬流水碎春星)
환패중경경가청(環佩珠璣更可聽)
화하문승미빈백(花下聞僧未聞僧)
산중견조우모청(山中見鳥羽毛青)
흥란주찰빈투현(興亂州刹貧投縣)
음고해성구재정(吟苦鞋聲久在庭)
회수오경종락처(回首五更鐘落處)
영원도사불증경(靈源都似不曾經)

출출 흐르는 시냇물과 봄빛 별빛 부서져라
쟁글쟁글 배옥 소리를 다시 들을 만하네.
꽃아래서 스님 만나니 눈썹 귀밑털 희고
산중에서 새를 보니 새의 깃털은 푸르구나.
흥 무르녹자 술만으러 저주 읊내 보내고
괴로이 읊어라 뜰엔 신 썩는 소리 들리네.
새벽 종소리 울리는 곳에 머리 돌리니
별천지가 온통 일찍이 못 보던 곳 같구나.

화엄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속진을 씻어내는 일에 몰두하는 황현의 마음이 두수의 시를 통해 가감 없이 전해진다. 앞에서는 절의 풍경을 통해 무상감을 느꼈지만 뒤의 수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흥을 통해 인간세상의 시름을 잊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출출 흐르는 시냇물과 별빛, 패옥소리, 꽃, 흰 귀밑털, 새, 푸른 깃털 등의 원색적이고 감각적인 단어들이 최대한 동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흥이 무르익은 봄밤의 정취도 새벽종소리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한다. 바이흐로 새벽종소리 울리는 절집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 별천지로 보이는 것이다.

매천이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시에 다시 화엄사가 등장한다. 중앙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구례에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던 시절이다. <매천집> 제4권에 전하는 시의 제목은 ‘저녁에 화엄사에 들르다[暮投華嚴寺]’이다.

노흑난분백안천(路黑難分百眼泉)
수조요견담등현(樹梢遙見塔燈懸)
음음류벽경비서(窸窣溜壁驚飛鼠)
알알계림기단선(溪林記斷鐘)
전의청소쌍각은(殿倚晴 雙角兀)
산환만월반규원(山含滿月半規圓)
일정상원등라의(一程尙遠藤蘿外)
차입동로차담면(且入東寮借榻眠)

감감한 길 백안천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나무 끝 걸린 탑등 멀리서 보이네.
축축하게 젖은 벽에선 날다람쥐에 놀라고



화엄사 일주문과 단풍. 우체통과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다.

칼칼대는 시내 숲에선
꿇어진 매미 소리 떠올라네.
전각은 갠 하늘에 솟아
지붕 양끝이 우뚝하고
산은 만월을 가려반쯤 등글어 보이네.
등라 저 너머로 갈 길이 아직 멀어
우선 동쪽 요사에서 침상 빌려 잠드네.

시의 말미에 ‘봉천(鳳泉)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밤이 깊어서 승당에서 머물렀다’라는 첨언이 한 줄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잘 곳을 찾아 화엄사에 들린 듯하다. 이 시는 37세 때 쓴 시와는 달리 매우 관조적인 자세가 드러난다.

수련의 ‘백안천’은 눈물이 솟구치는 샘 즉 눈을 뜻한다. 저무는 길에 사방 분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로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멀리 탑등이 보여 절집으로 가는 방향이 잡힌 상황이다. 그래서 절에 이르는 동안 다람쥐를 만나고 매미울음소리를 기억하는 등 자연과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 그려진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미 절에 당도하여 달 빛 아래 고즈넉한 산사를 묘사하고 있는데 등라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우선 화엄사에서 머무는 정황도 담담히 그려내며 시를 맺는다. 여기 등장하는 등라는 ‘산 위에 있는 절’이라는 뜻이다. 두보(杜甫)의 시에 ‘등라 저 너머에 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래도 꺾꽂해야 꼭 대기까지 오르겠군(諸天合在藤蘿外 昏黑應須到上頭)’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추사 김정희가 본 화엄사 풍경

황현보다 앞 시대를 살았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문집에는 화엄사와 관련된 칠언절구 한 수가 보인다.

다. <완당전집(玩堂全集)> 제10권에 나오는 시의 제목은 ‘화엄사에서 돌아오는 길에[華嚴寺歸路]’이다.

불만추산영취미(佛 秋山映翠微)
수전백첩학승의(水田百疊學僧衣)
종성욕단사양원(鐘聲欲斷斜陽遠)
천점한이일객귀(千點寒鴉一客歸)

부처 머리가 숲에 푸른 안개 비치는데
백첩이라 수전은 스님들의 옷을 배웠구나.
종소리 끊기는데 석양은 이슬하고
천 점의 갈기머리 외로운 길손 돌아가네.

전반부에 시인의 눈에 비친 화엄사는 매우 찬란하게 묘사되고 있다. 가을 산의 울긋불긋한 모습이 부처님의 머리 즉 화려한 장식으로 장엄된 화관에 비유되고 있다. 그렇게 화려한 산에 안개가 비치어 더욱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는 것인데, 곡식이 익은 눈은 스님들의 옷자락처럼 백 겹으로 펼쳐져 일렁이고 있다고 그려내고 있다. 절창이다.

종소리 끊어지는 석양 무렵, 시간은 아득하게 느껴지고 하늘 가득 나는 갈가마귀는 돌아가는 외로운 길손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다. 물경(物景)에 빚대어진 사람의 심사가 매우 서정적이지만 그 속에는 종생의 근원적인 고독이 묻어 있다.

모름지기 시란, 사물에 빚대어 사람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러는 풍경 속에서 더러는 이치 속에서 무상한 인간의 존재감을 확인하는데 시의 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의 시로 화엄세상을 드러내려는 시인의 마음도 화엄세상의 한 조각 구름 일 뿐이었지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한 ‘달이 되어 비추네’



‘아미타 극락도’. 박경귀 원장은 150여 사찰 탱화 작업을 이어왔다.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